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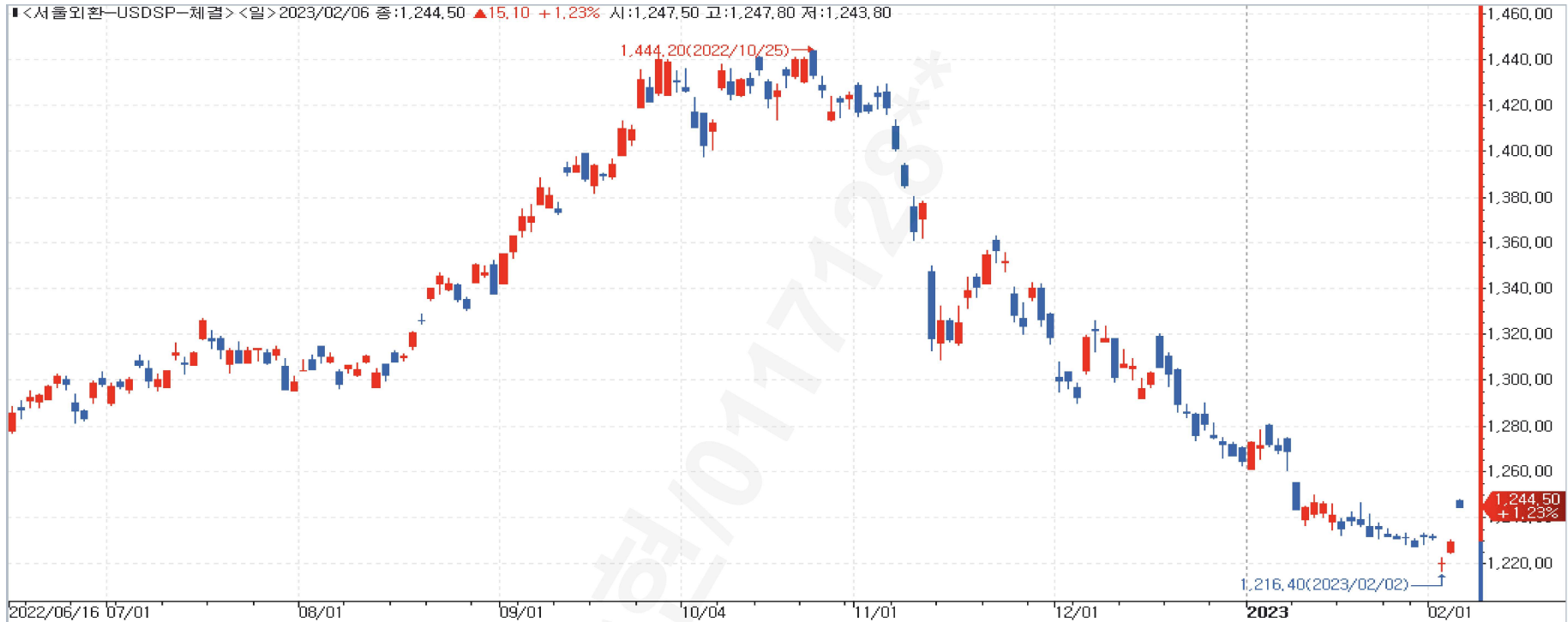
2023. 2. 6

시 정훈 연구위원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1/30~2/3)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 12월 PCE 물가지표가 전월보다 둔화하며 연준 긴축 완화 기대감 지속과 BOJ 정책 변경 기대 등으로 하락 출발. 이어 FOMC를 앞두고 정책 결정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는 가운데 변동성 확대 속 소폭 상승했으나, 양호한 중국 경제지표에 따른 위안화 환율 하락을 반영하며 상승폭 다소 둔화된 양상
- 중반 들어, 미 임금상승과 관련한 고용비용지수 부진에 달러 약세 반영하며 소폭 하락
- 후반 들어, 2월 미 FOMC 결과가 베이비시스템 전환하며 다소 비둘기적 해석된 파월의장 회견 등으로 큰 폭 하락세 시현 후, 주 후반, ECB와 BOE의 매파 성향 금리 결정에도 선반영 영향 등으로 소폭 반등 후, 미 고용지표 대기하며 마감

달러/원 전망

- 미국 1월 고용이 51.7만명으로 시장 예상을 세배 웃돈 가운데 실업률도 3.4%로 하락 196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영향 등이 그간 인플레이션 감소에 대한 연준 피벗 기대를 크게 약화시키며 환율 변동성을 키울 가운데 환율 방향성이 상승으로 전환할 전망
- 여기에 상기 요인에 따른 연초 이후 국내 증시 등으로 유입되던 자금 흐름에 대한 위험 선호 약화 가능성 등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판단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229.9	1233.2	1216.4	1229.4	-1.9

예상거래범위

1,235원 ~ 1,255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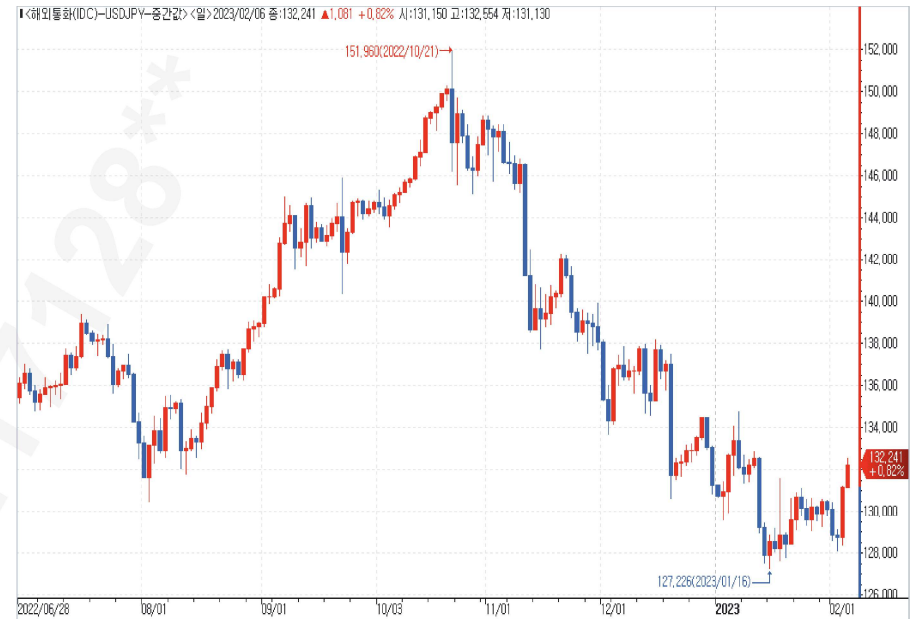
엔·유로화 동향 (1/30~2/3)



유로화 동향

- 주초, ECB 통화정책이 연준과 차별화될 것이란 전망에도 FOMC 앞둔 경계감 강화에 따른 달러 강세를 반영하며 약세 출발 후 소폭 강세 되돌림 형국
- 중반 들어, 연준이 FOMC 정례회의에서 베이비스텝 금리인상을 결정하며 도비시 스탠스를 보인 가운데 ECB의 물가 대응 매파 성향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기대 및 유로존의 개선된 경제 지표 등으로 강세 지속
- 후반 들어, ECB가 물가 대응 매파적 빅스텝 금리 인상을 결정했으나, 선반영된 영향과 금리인상이 종착점에 도달했다는 시장 인식 등으로 하락 전환. 이어, 주 후반, 미 1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과 크게 어긋나며 월신 견조함을 보임에 따라 연준 금리인상 종착 기대가 주춤 해지면서 유로화는 큰 폭 약세 전환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865	1.1001	1.0792	1.0793	-0.0071



엔화 동향

- 주초, FOMC를 앞둔 일본 관망세 속에 변동성 확대를 반영한 달러 강세 영향 및 BOJ 총재의 현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의지 등으로 약세 출발 후, 미 임금 상승세가 가파르지 않은 결과를 반영하며 소폭 되돌림되는 양상
- 중반 들어, 도비시한 FOMC 결과 반영 속에 수급적으로도 일본 수출기업들의 엔화 매수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강세 지속 양상
- 후반 들어, FOMC 결과의 도비시 영향 반영에 따른 미 국채수익률 하락으로 강세 양상 지속 후, 주 후반, 미 고용지표가 예상을 크게 웃도는 개선을 보임에 따른 미 국채 수익률 상승을 반영하며 약세 전환 흐름 속에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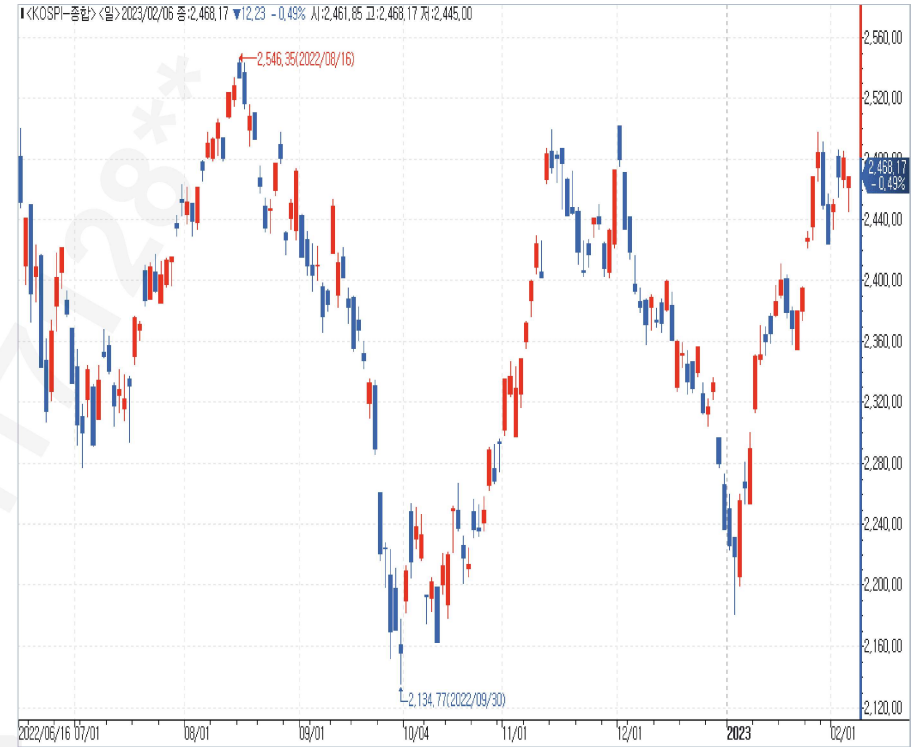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29.9	131.2	128.0	131.2	+1.3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30~2/3)



주간 국고채금리 동향

- 주초, 미 12월 PCE물가 둔화 추세가 반영된 국면 속에 외국인 투자자 국채선물 매수 확대로 하락 출발. 이어 IMF가 국내 성장 전망을 1.7%로 하향 조정했으나, 시장 영향 제한된 가운데 FOMC 경계감 강화 속에 중국 경제 지표 개선 영향을 반영하며 급등 전환
- 중반 들어, FOMC 결과 앞둔 경계감 강화와 변동성 확대 속에 소폭 하락 추세
- 후반 들어, 국고채 금리는 시장 예상에 부합한 베이스스텝 전환 속에 다소 비둘기적으로 해석된 FOMC 결과를 소화하며 급락 양상 시현 후, 주 후반, 연준의 베이스 스텝 전환 기조에도 BOE, ECB의 빅스텝 금리 인상 영향이 제한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선물 매수 강화 등으로 하락 지속하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미 12월 PCE 물가가 전년동기비 4.4% 상승하며 둔화 양상을 보인 가운데 시장 예상에 부합하였지만, 그간 상승에 따른 기관의 강한 매도에 하락 출발 이어, 국내 주요 기업 실적 악화 발표에 12일 순매수를 이어가던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전환에 따라 하락 추세 이어진 국면
- 중반,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양상이었으나,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를 낮출 것이라 기대감 확대 속에 상승 전환
- 후반 들어, '23년 첫 FOMC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베이스스텝 금리인상과 다소 비둘기적 연준 의장 발언에 상승 추세 지속 후, 그 영향이 이어진 모습이었으나, 뉴욕증시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부진 등이 상단을 제한하며 마감